

끊임없이 도전하게 하는 원동력

출세의 의미

- 편집실 -

암컷에게 잘 보이고 싶은 수컷의 본능처럼 남성에게도 여성에게 자기의 영역을 과시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다. 이런 끊임없는 도전들은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 온 원동력이 되었다. 그래서 가끔은 안정보다 미래를 생각하고 여성이 보기엔 지나치다 싶은 행동도 하게 된다.

힘에 기준한 끊임없는 도전

거의 모든 동물의 삶을 보더라도, 암컷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은 수컷의 본능인 것 같다.

동물의 세계에서 암컷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한 수컷의 행동을 보면 아무래도 힘이 그 기준이 된다. 그래서 수컷들은 힘을 과시하기 위해 뿔을 부딪히거나, 주먹으로 치거나 하면서 어떤 때는 목숨조차 거는 경우도 있다.

싸움에서 이긴 동물은 대개 여러 암컷을 거느리면서 자기의 영역을 과시하게 되지만 다른 이들의 끊임없는 도전은 계속된다. 고대 우리 선조들의 삶도 그러했으리라 짐작된다.

남성은 여성을 위해 산다

그렇지만 인간은 문명이 발달하면서 차츰 물리적인 힘보다는 다른 것으로 여성의 환심을 사려고 하

게 된다. 재산, 명예, 머리, 권력, 재주 등 여성들에게 환심을 살만한 요소들이 다양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남성에게 있어 '출세' 나 '성공' 의 의미는 바로 이 모든 것을 포괄할만한 것이다. 암컷의 환심을 사기위한 수컷적인 본능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남성에게 있어 출세의 의미가 수컷적인 본능이기도 하지만 남녀 누구에게나 있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 의 한 방편이 되기도 한다.

결혼을 했거나, 애인이 있는 남성의 경우 제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대상은 당연히 자신의 아내거나, 애인이 되는데 남성의 경우 훨씬 심하다.

남성이 헬스를 하며 몸매를 다지거나, 폭주족이 자신의 여성을 태우고 목숨을 건 질주를 하거나 모두 남성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싶은 가련한 소망이 깔려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남성적인 힘의 과시를 위한 투쟁에는 끝이 없다. 호탕한 남성임을 과시하

기 위해 폭탄주를 마시거나, 실력 이상의 허세를 부리거나, 경제력 이상의 돈을 쓰는 등 마치 인생의 전 과정이 그 누군가에게 환심을 사거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투쟁의 연속이다. 어찌보면 이 끝없는 투쟁과 경쟁이 인류문명을 발전시켜 온 하나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인정받고 싶은 강한 욕구

요즘 잘 나가던 대기업 직원들이나 공무원, 은행원 등의 직,간접적인 벤처행이 줄을 잇는다. 이것은 보다 높은 급여와 스톡옵션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의 분명한 자기표현이라 할 수 있다. 큰 조직체의 한 일원으로서 느끼는 성취욕과 안정적인 직장보다는 미래가 불안하지만 보다 분명한 자아실현과 도전정신이 훨씬 값어치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여성로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행동이지만 이것이 바로 남성이다. 말없이 직장생활에 충실한 남성이지만 누구나 거의 모든 남성들이 이런 인정받고 싶고 보다 높이 올라가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결론을 내리자면 남성에게 있어 출세란 관계되어 있는 또 앞으로 관계될 여성에게 잘 보이고 싶은 유전적 욕구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정신적 욕구의 분출구라 할 수 있다.

설사 패배할지라도 도전

왜냐하면 남성들의 경쟁과 투쟁, 그 이면에는 여성에게 잘 보이려하는 본능적

인 습성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동물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남성들의 세계에서도 승자에게는 환희와 영광이 패자에게는 슬픔과 좌절이 주어진다. 때로는 평생을 걸고 싸워온 투쟁이 패배로 끝날 때도 있다.

10년, 20년 일해 온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기도 한다. 어찌보면 남성에게 있어 직장보다는 남성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이 훨씬 충격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여성의 자리는 바로 이런 때 빛을 받게 된다. 허물어져 버린 남성의 자존심을 북돋우고 그 참담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여성, 이런 여성 옆에 있는 남성은 반드시 재기할 수 있을 것이다.

